

CJ, 라이신 가격만큼 주가 올라라!

2003년 3Q 실적 예상보다 좋아 ... 증권가 목표주가 상향조정 이어져

CJ의 3/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666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3일 공시에 따르면, CJ는 2003년 7-9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의 매출 증가, 환율하락,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의 경영 호조 등에 힘입어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02년 3/4분기의 715억원에서 762억원으로 6.6% 늘었으며, 경상이익은 422억원에서 805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09억원에서 598억원으로 각각 90.8%와 93.5% 증가했다.

CJ 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의 히트상품과 신규 신선식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수입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및 판매가격 개선, 판매호조 등에 따라 2003년 3분기 누계 순이익이 1680억원에 이르는 등 2003년 목표수익 1703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J의 3/4분기 실적이 예상 수준을 상회하면서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대우증권은 11월4일 CJ의 목표주가를 종전 6만65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높였다.

대우증권은 CJ의 수익예상 상향 조정, 실질 주당 순자산가치,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을 감안해 투자여건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CJ 주가가 제일투자증권 매각 가능성, 삼성생명 상장 가능성, 환율하락 등 외생변수에 의해 움직여 왔으나 이제는 외생변수보다는 영업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3/4분기 경상이익이 급증한 것은 지분법 평가이익에 해외 현지법인 PT.CSI(CJ의 지분을 91.76%)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라이신(Lysine)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소재 PT.CSI는 라이신, MSG, 사료 등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2002년 말부터 중국의 라이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시장에서의 라이신 평균가격은 2002년 톤당 1403달러에서 2003년 1850달러 이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 원재료가 달러로 결제되는 탓에 환율하락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증권도 목표주가를 7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종증권은 CJ의 3/4분기 이익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점을 고려해 2003년과 2004년 예상실적을 상향 조정했다. 2003년 영업이익 전망은 매출증가와 원가하락에 따른 이익 증가를 반영해 기존보다 12.1% 상향 조정한 1957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순이익은 지분법이익의 증가 등을 반영해 기존 전망치보다 14.1% 상향 조정했다.

2004년 매출은 가공식품 매출의 호조와 핵산 등 생명과학 부분의 매출 증가에 따라 기존 2조4885억원에서 1.8% 상향 조정한 2조5337억원으로, 2004년 순이익은 지분법평가이익 증가를 반영해 18.7% 상향 조정했다.

우리증권 역시 CJ의 2003년 수익에 대해 회계변경을 반영한 매출액은 0.6%, 영업이익은 7.7% 상향 조정하고, 2004년 매출액은 0.6%, 영업이익은 6.8% 각각 상향 조정했다.

투자여건은 <매수>, 적정주가는 6만61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05>